

깨끗한 농업용수 지킨다…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석방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 오종명 기자 | ㉠ 승인 2026.06.28 16:57 | ㉡ 17면

풍천면 석장저수지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의 날’ 행사
벌목 부산물 집중 수거로 수질오염 예방 및 경관 개선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제적 저수지 관리 필요성 커져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26일 안동시 풍천면 석방저수지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열고 저수지 주변 환경 개선과 수질보전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26일 안동시 풍천면 석방저수지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열고 저수지 주변 환경 개선과 수질보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저수지 주변에 벌목 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아카시아나무 등 수목 부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는 한편 시설물 안팎의 환경을 정비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펼쳤다.

특히 이날 환경정화는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보다 집중호우 시 저수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벌목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수지 경관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 효과도 높였다.

석방저수지는 풍천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리시설로, 지역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수질관리,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 주변 환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승표 안동지사는 “깨끗한 농업용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질보전과 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